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 마침표

10일 준공...내달부터 콘텐츠 설치 등 시범운영

5월1일 정식 개관...향후 운영주체 놓고 시각차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착공에 들어간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가 오는 10일 준공된다.

추진단은 이달까지 내부 콘텐츠 설치를 마치고, 2월 24~27일 5·18단체와 시민단체에 우선 공개한 뒤 4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방문객의 의견과 안전상 유의사항을 수렴해 최종 보완한 뒤 5·18 기념행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1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도청 본관, 도청 별관, 도경찰국 본관,

도청 민원실, 도청 회의실, 상무관 등 6개 공간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콘텐츠와 상설 추모 공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조성된다.

도청 별관은 방문자센터, 건축역사실, 복원역사실, 민주주의 교육 체험실 등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최후 항쟁지인 도청 본관에는 시민군 상황실·기자회견실·유족대표 협상실 등을 재현해 열흘간의 항쟁 기록을 선보인다.

도경찰국 본관은 ‘민중의 저항과 승리의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역사·기록·영상 유산을 전시하며, 도청 민원실과 도청 회의실은 각각 특별전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전경.

시 및 휴게공간, 독서·토론공간으로 마련된다.

상무관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대기영상에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 79쪽 글귀 ‘당신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

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담는다.

지난 2일 공사로 인해 폐쇄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지상 1번 출입구와

문화전당역 5번 출입구도 개방됐다.

시민 김모씨(36)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썼는지 궁금하다”며 “옛 전남도청이 민주주의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개관 일정과는 별개로 옛 전남도청의 운영을 맡을 주체에 대해 지역사회가 합의점을 찾는 상황이다.

그동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ACC가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옛 전남도청 사적 건물을 운영해 왔지만 복원 이후에도

ACC가 운영을 맡을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 운영할지가 쟁점이다.

문화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주요 시설인 ACC의 운영 주체 문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성위원회 심의사항이며, ACC가 운영을 맡아 민주평화교류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5·18 단체 등은 옛 전남도청의 역사성을 고려해 ACC로부터 분리해 문제부 1차 소속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시 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월까지 1년 연장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은 최후항쟁 오월 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한 상징성 있는 공간이다”며 “공간 중심의 전시 콘텐츠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42	달출	22:56
예보	17:37	달입	10:48



광주		-4~3
목포		-2~2
여수		-4~4
순천		-5~3
구례		-6~2
광주		-3~3
진남		-2~4
진남		-1~4
진남		-5~5
진남		-1~3

목포	미물(고)	05:20 / 17:59
여수	미물(저)	10:32 / 23:08
	미물(고)	00:09 / 12:34
	미물(저)	06:06 / 18:36

음주운전하다 바다로 풍덩

만년필...한밤중 광양항 해양공원 인근

해상으로 승용차가 추락해 여수해양경찰이 구조에 나서.

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4분 광양항 해양공원 인근 해상으로 승용차 1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에 접수.

여수해경 광양파출소 경찰관과 육상 경찰·소방, 해양재난구조선 승민호(1.67t)가 승용차에 있던 운전자 A씨(40대)와 동승자 B씨(40대·여)를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

이들은 사고 직후 소방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

A씨는 발목 골절과 허리 통증을, B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사고 승용차는 육상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

여수해경은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액 채취를 진행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교육 ‘5년 인증’ 획득

광주여자대학교는 7일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기간은 2026년 6월13일부터 2031년 6월12일까지 5년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학생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교육여건 등이 국가와 사회, 간호 전문직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이 인증을 획득한 대학의 졸업생에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광주여대 간호학과는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과 △교육성과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서류평가와 방문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김윤수 기자 joinsu@

광주시·5·18재단, 암매장 유해 발굴 재개

북구 효령동 일원...주민 증언·군 작전 기록 등 근거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암매장 발굴 작업을 재개한다.

옛 광주교도소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암매장 발굴 조사가 새로운 증언과 구체적인 군 작전 기록을 토대로 다시 시작되면서 40년 넘게 가족을 기다려온 이들의 염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 효령동 산143 일원에 위치한 공동묘지 구역에 대한 발굴을 진행한다. 이번 발굴 재개는 단순한 정보 접수를 넘어선 체계적인 검증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시와 5·18기념재단의 설명이다.

효령동 일대는 5·18 당시에도 공동묘지였는데 당시 군인들이 오가며 암매장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목격했다는 민간인의 진술이 확보됐다. 항쟁 이후 부대 내에서

가매장했던 시신을 다시 옮기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당시 군인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군 병력의 이동 경로와 주민들이 목격한 트럭의 이동 동선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며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4월5일까지 분묘 개장 공고를 진행한 뒤 발굴 조사에 들어간다.

시와 재단은 해당 분묘가 무연고 묘지나 확인될 경우 파묘 후 유골을 수습하고 전남대 법의학교실 등에 의뢰해 행방자신고 가족들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사업’ 성과물 전시회 7일 광주 동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별별 동구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사업’ 성과물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국립목포대 2024년 취업률 67.5%...‘국립대 1위’

맞춤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경쟁력 강화 정책 효과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가 일반국립대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국립목포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취업률 67.5%를 기록하며 전국 일반 국립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호남·제주권에서는 3년 연속 1위의 성과를 거뒀다. 목포대 취업률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전국 일반 국립대학 취업률 4위, 2023년 2위에 이어 2024년에는 전국 1위로 도약하는 의

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는 대학입학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전주기 취업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지역 및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목포대는 학생들의 학년별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운영 및 진로·취업 로드맵 제공 △전공탐색 교수 멘토링 및 지역 산업체 임직원 멘토링 운영 △진로 단계별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현장중심 인턴십 운영 등 체계적인 취업 경쟁력 강

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다양한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학생 개인의 진로 단계와 역량 수준에 맞춘 성과 중심의 취업 지원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단계적인 취업률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또 2020년부터 전남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6년 연속 선정돼 운영 중으로, 매년 20여명의 연수생이 해외 취업에 성공해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하철 총장은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월출산국립공원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 ‘남부권 1위’

국립공원 육상 생태계 탄소저장·흡수량 평가

연간 1ha당 5.77t...무등산·지리산 3~4배 수준

월출산국립공원이 남부권 국립공원 중 단위면적당 가장 뛰어난 탄소 흡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에 따르면 월출산국립공원의 연간 1ha당 생태계 순 탄소흡수량은 5.77t으로, 남부권 8개 국립공원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전남권 국립공원인 무등산

(1.79t), 지리산(1.34t)보다 3~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월출산에 이어 한라산국립공원(4.61t), 한려해상국립공원(4.24t)이 뒤를 이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2.01t, 무등산과 지리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월출산국립공원의 전체 식생면적은 4870ha로 남부권 국립공원 중 가장 작은

규모에 속하지만, 연간 생태계 순 탄소흡수량은 2만8120t에 달했다. 월출산이 1년 동안 실질적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2만8000t을 넘는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탄소흡수능력의 배경으로 ‘침활혼합군락’의 비율을 꼽았다. 월출산의 식생 구성은 활엽수군락 2098ha(43%), 침엽수군락 1458ha(30%), 침활혼합군락 1315ha(27%)로 분석됐다.

특히 침활혼합군락의 1ha당 생태계 순 탄소흡수량은 19.11t으로 가장 높았고, 활엽수군락은 2.11t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남부권 국립공원 중 식생면적은 지리산국립공원이 4만7332ha로 가장 넓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만4625ha, 한라산국립공원 1만4248ha 순이었다. 무등산은 5553ha, 월출산은 4870ha로 조사됐다.

연간 생태계 순 탄소흡수량은 지리산이 6만3306t으로 가장 많았고, 다도해해상 4만9571t, 월출산 2만8120t, 무등산 9944t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리산과 다도해해상, 무등산의 침활혼합군락 비율은 각각 7.6%, 18.4%, 19.9%로 월출산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부권 8개 국립공원의 연간 생태계 순 탄소흡수량은 29만5673t으로 분석됐다. 숲 유형별로는 활엽수군락이 가장

넓은 면적(7만5028ha)을 차지하며 12만2805t의 탄소를 흡수했고, 침활혼합군락(9만5793t), 침엽수군락(6만8796t), 인공림(5771t)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가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탄소저장고이자 흡수원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국립공원별 육상 탄소저장·흡수량에 대한 중장기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육상생태계의 탄소 저장·흡수·배출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